아굴의 잠언에 대한 경제적 해석

김 형 철*

Ⅰ. 문제 제기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라는 제목이 붙는다. 여기에는 아굴의 간절한 기도내용이 들어있다. 아굴은 솔로몬 시대에 잠언을 수집, 정리하여 가르친 랍비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는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며, 총명이 없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였다 (잠 30:2-3).

아굴에게는 죽기 전에 허락받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 두 가지가 있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정직한 삶, 그리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이다. 그 이유는 혹 자기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누군지 모른다 할까봐 걱정되며 혹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 하였다 (잠 30:7-9). 아굴은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그리고 부의 위험과 가난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경계하는 균형 잡힌 삶을 간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가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한다. 경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절대자에게 기도를 한다. 아굴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 위해, 사람의 정해진 위치에서 살고자 하였다. 그의 기도는 신앙인으로서 배울만하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다음의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한다. 첫째,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의 유익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 둘째, 신앙의 주된 내용인 정직함이 실제로 경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셋째, 부의 극대화가 갖고 있는 위험과 빈익빈의 가난이 갖고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기부와 복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급성장한 우리나라 경제는 분식회계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결여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성장에 대한 이윤이 고루 분배되지 않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전락되는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정직한 중산층 육성은 국가나 교회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책임경영이 가능한 지배구조의 정착, 분식회계에 관한 감시, 가계부채의 연착륙,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제적인 방안들이 요청된다.

---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hckim@bu.ac.kr

본 연구는 아굴의 기도 내용을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로는 리래든 라이큰(1995)이 청교도들의 사상을 정리한 것으로, 청교도들은 부로 인한 유혹과 가난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하였으며 또한 돈을 소유하거나 소비할 때 탐욕과 사치의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절제된 중용 즉 중산층의 삶을 중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전광식(1991)은 아굴의 기도에 담겨진 성경적 소유원리에서의 중용미와 경외미를 설명하였으며 황병철(2003)은 정직과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재물, 두 가지만을 기도했던 아굴의 기도를 해석하고 신자들이 아굴의 기도를 본받는 기도생활의 실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정직한 경제에 관한 연구로는 회계 부정이 그동안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회계 부정이 사라져야만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 조권(2017)과 경영자가 주주나 기업의 이익보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분식상태로 보고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분식회계 실태 및 예방대책을 정리하여 자본주의 경제에서 청지기의 진정한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이경락, 2017). 중산층 경제에 대한 연구로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이 감소되고 있는 원인으로 많은 서비스 직종 및 중소기업들의 임금이 정체되어 있으며, 맞벌이 가구비율의 수준이 낮아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상환금 및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최성근·이준협, 2015).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연소득 대비 약 8배 수준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게다가 가계부채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관련대출의 만기구조가 비교적 짧고 변동금리이므로 특히 금리상승 시에는 이자 부담이 크다. 최근 우리나라 중산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높아(약 55%) 중산층 가계에 재무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연구가 있다 (McKinsey&Company, 2013). 그러므로 중산층 가계의 재무건전성 수립을 위해 재무위험에 관한 교육과 부동산가격 변화에 대응할 상품 설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 장기화, 부동산 딜러시장의 조성, 임대주택의 활성화, 주택연금을 활용한 연금 확보 등 가계의 비유동자산을 유동화 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형철, 2017). 또한 주요국 대비 기업가치의 평가 수준이 낮은 중요한 요인으로 회계이익의 낮은 질과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임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김준석, 2017).

아굴의 기도 내용을 경제에 적용하여 보면 신앙의 구체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신앙성숙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Ⅱ장 정직한 경제에서 분식회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밝힌다. Ⅲ장 중산층 경제에서 부와 가난의 위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동반성장과 청교도들의 시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아굴의 잠언이 개인의 영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는 기도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Ⅱ. 정직한 경제

아굴의 기도제목 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정직한 삶을 간구하는 기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출 20:16)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잠 20:10)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시 5:6)

아굴의 첫 번째 기도인 정직성을 경제생활에 적용하여보면 고의적인 분식회계, 그리고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2.1 분식회계의 방지

재정관리의 기본은 정직한 회계다.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세계 60위권이라고 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 회계라는 공공재는 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귀찮은 규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남을 속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조권, 2017).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하거나 반대로 적게 왜곡시켜 회계장부에 보고하는 회계부정을 분식회계(window dressing settlement)라 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회계부정인 재무제표 분식 방법 중 하나는 재고자산 조작을 통한 이익의 과대 계상이다.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과대 계상하면 매출원가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조작된다. 이 방법은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동시에 분식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하여 이익을 과대 포장하는 방법 또한 고정자산의 과대 계상 효과를 동시에 가져와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동시에 분식할 수 있다. 그리고 부채로 계상할 충당금을 이익잉여금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부채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아 자본구조가 좋은 것처럼 왜곡되는 효과가 있다 (이경락, 2017). 그러므로 분식회계는 가능한 모든 회계기법을 동원하여 자산과 이익은 늘리고 부채나 손실은 줄이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재무정보를 활용한 투자보다는 기업의 평판, 언론 보도내용, 심지어는 떠도는 풍문에 따라 투자를 하는 관행이 더 문제인 듯하다.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분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 때문이지만, 분식회계의 폐해는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 도산은 다른 이유로 인한 경영실패보다 사회적인 손실이 훨씬 더 크다.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는 기업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주주들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채권자들의 채권부실화,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퇴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최고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황호찬, 2001).

과거 미국 월가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회계부정은 주로 스톡옵션 및 사내 연기금 수익

과 연관되어있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기업 엘론의 경우 자회사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390억 달러에 이르는 경상지출을 자본지출로 수년간 분식회계하여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한 것이 드러나자, 한때 98달러 하던 주가가 1달러 이하로 폭락했다. 외환위기 전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추정된 기업의 분식회계 실태를 살펴보면 한보철강(6,920억 원), 기아자동차(3조148억 원), 두산산업개발(2,883억 원), 대우계열12사(22조9천억 원), 동아건설(7,140억 원), SK글로벌(1조5,587억 원)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3년, 2014년 영업이익을 1조5천억 원 이상 추가 분식회계한 것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13년부터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반영하거나 항공기와 기동헬기 등 주력제품의 부품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분식회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원칙에 맞는 회계와 엄격한 감독규정을 마련하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고에 대한 회계처리방식, 자본지출에 대한 개념, 자산의 시가평가기준에서 선진형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시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작업을 지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보고서에 기업 최고경영층의 인증을 의무화하며, 회계정보 생산자의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식회계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과 포상금 지급, 합리적인 외부감사제도의 정착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두어 회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회계법인과 피감사회사 간의 유착을 사전적으로 근절시킴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2 지배구조의 불투명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재벌회사들은 순환출자를 통해 오너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경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이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최근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현대자동차의 한국전력 부지 확보에서 보여준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등을 비롯하여 최근 기관투자자들은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보통주 지분 7.21%(12조 원)을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 이것이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와 승계구조에서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의 변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임에 틀림없다. 우선 법률적 위험이 있다.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모든 업권의 설립근거법에는 자산운용규제의 일환으로 대주주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두고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출자관계에 얽힌 법률적 위험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유력한 해소 방안 중 하나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다 (김상조, 2016). 또한 롯데그룹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 사태

에서 오너 일가가 2.41%의 적은 지분을 갖고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구조 문제는 심각하다. 복잡한 순환출자의 지배구조를 갖는 여러 재벌들과 이를 용인하는 정부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주주들이 행동으로 바꿔야 하며 또한 경영자의 소통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1대 주주로서 역할을 한 데 이어 롯데 사건에서도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말 기준 470조 원 정도의 운용자산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금융선진국들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의결권 행사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경우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 기업들(75개)이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에 답을 하고, 만약 준수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공시했다. 미준수 사항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주의 공평한 대우에 관한 항목이었다. 이는 공평한 의결권을 위한 수단으로 꼽히는 전자투표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이행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 공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교회나 자기의 재산 그리고 직업이나 직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다. 루터나 칼빈의 직업소명설에도 나타나 있듯이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므로 직업을 단지 수단적 목적으로 여기지 말고,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 목적에 맞는 사회가 되게 해야 한다 (Donald M. Hallberg, 2002). 또한 재물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눅 16:10-11)는 말씀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받은 소명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투자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2.3 기업가치에 영향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저평가의 큰 원인은 회계이익의 질이다.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회계정보는 투자의사결정의 기본 요소이며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키는 수단이다. 회계이익의 질적 수준에 대해 불신할 경우 투자자는 회계적 지표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한다. 회계이익의 질 측정기준은 이익 변동성 축소, 현금흐름 충격 축소, 발생액 규모, 소규모 손실 회피 등인데 2007-2016년 42개국 전체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으로 측정된 Datastream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은 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ROA 1%가 기업가치 평가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ROA가 1% 증가할 때, 회계이익의 질 순위가 25%인 경우 Tobin's Q는 1.21에서 1.24로 증가하나, 회계이익의 질 순위가 75%인 경우 Tobin's Q는 1.43에서 1.54로 증가한다.

기업가치의 가장 근본적인 결정요인인 수익성과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가치평가 수준이 낮은 것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투자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 기업가치의 가치평가지표인 Tobin's Q와 market to book 비율은 2007-2016년 42개국 기준 각국 전체 상장기업 가중평균을 비교해 볼 때 모두 하위권이다 (김준석, 2017).

스튜어드십 코드는 청지기 코드로 자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책임있는 투자를 유도하게 하는 주주권 행사 준칙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은 투명성, 의결권 행사, 모니터링, 활동의 시기와 방법, 연대, 의결권 행사 매뉴얼, 보고 등으로 요약된다. 기관투자자는 시세차익만을 꾀하는 투자에 그치지 않고 투자전략이나 운용자금의 성격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Simon CY Wong, 2010).

펀드 평가업체 제로인이 2017년 현재 운용 중인 437개 국내 주식형펀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인 ESG 즉 환경(E: Environmental),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점수가 상위 10% 이내인 펀드 21개의 1년 평균 수익률(18%)이 하위 10%에 속하는 펀드보다 13.7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SG 평가가 좋은 펀드는 주주가치나 환경보호 등에 적극적이며,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유지하는 기업들을 많이 편입한 상품이다.

금융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ESG 투자규모는 약 2,335조 원을 넘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전체 투자자산의 약 26%가 ESG 방식으로 투자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ESG 투자규모는 약 7조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흐름에 따라 ESG에 초점을 맞춘 투자 상품들이 등장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Ⅲ. 중산층 경제

개인이 경제적으로 자족을 하는 중산층의 삶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산층 가계는 사회의 리더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으로 부유층과 빈곤층 두 계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와 구매력을 가진 소비의 주축을 이루는 중산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완화되는 등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 및 균형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아굴의 영성에서 중산층의 자존감은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완성을 의미한다 (마 22:37-39). 아굴의 기도는 초기 교회에서 성도 간 공유하며 자족하는 삶을 덕목으로 삼은 것과 사도바울이 교회의 헌금에 대해 성도 간 평균케 하는 것이라 한 것(고후 8:14)과도 궤를 같이 한다.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는 중산층은 경제적 의미에서도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이러한 정직한 중산층 육성은 국가나 교회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중산층이 약화될 경우 내수침체와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될 것이며,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계층으로 되어 건전한 경제활동과 사회통합이 더욱 약화될 것이다 (김형철, 2017). 중산층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또한 부에 대해 중용의 태도를 중시하는 청교도 정신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

3.1 부의 위험

아굴의 간절한 두 번째 기도는 부유함이나 가난함도 아닌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 6:11)라는 말씀과 같다. 아굴이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굴은 인간이 부요하게 되는 것과 가난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부의 위험과 가난의 위험을 염려하고 있다. 아굴의 깊은 마음이 돋보이는 것은 중용의 삶이다.

부자가 되면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아굴은 우리들이 구하는 것과 반대로 “부하게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부요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관계로 만들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것은 세상을 사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를 축적하는 것을 우리 마음 중심을 둔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 6:10)는 말씀과 같이 욕망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며 결국 행복한 삶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2015년)에 의하면 한국인은 연소득이 1억8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행복도가 높았지만 이를 넘어서면 시간당 임금과 가구소득이 더 오르더라도 행복도가 정체되는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이 나타난다고 한다. 미국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 주장한 개념인 이스털린의 역설이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눅 12:16-21)에서 부의 위험에 대해 찾을 수 있다. "어느 부자가 소유한 밭에 소출이 넘치도록 풍성하자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 할꼬 하며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여러 해 쓸 물건을 곳간에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곳간에 쌓아둔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될까?"

어리석은 부자는 거둔 많은 소출이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 더 큰 곳간을 짓고 쌓아두려는 사람이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데 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물질을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을 자기 곳간에만 쌓아두는 도덕적 해이는 소득의 양극화와 경제의 유동성 함정, 잠재성장률의 고갈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상장기업의 과도한 유보율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나눔을 통하여 또한 소득의 환류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사회적 책임의 한 축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소유의 극대화가 아니라 소득의 환류를 통한 생명의 연대 즉 세대 간의 연대를 위한 지속성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창세기 37장-45장에 기록된 요셉의 경륜에 잘 나타나 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왔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지혜롭게 치리하여 여러 해 풍년 동안 곳간에 저축해 둔 풍족한 양식으로, 후에 이어진 여러 해 흉년 기근에 많은 백성의 생명과 또한 멀리서 양식을 얻으러 온 형들과 관계를 회복했듯이 넉넉한 물질은 나눔을 통하여 생명을 회복하고 구하는데 쓰여야 한다 (창 50:20).

하나님은 자신과 가족과 친척의 필요를 채운 다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고 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신 15:11). 또한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고 거저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잠 19:17). 성경을 보면 부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배될 때는 예언자가 없었다. 그러나 부의 격차가 심해져 불평등이 커질 때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고르게 나누기만 한다면 부를 싫어하지는 않으시는 듯하지만, 부가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것에는 부정적이시다 (짐 월리스,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 배당정책 간 관계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은 배당지급액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 수준과 배당정책 두 가지 재무적 전략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지혜·변희섭, 2014).

또한 적정한 배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나눔 경영을 하는 것이 복음적 배당원리로 제시되고 있다. 경영자는 최선을 다해 기업을 경영해야 하고, 성과가 창출되면 주주에게 적정한 배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배당을 100년 이상 지급한 기업이 윤리에 최우선을 두는 기업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oore, 1990; 박정윤, 2014). 따라서 부의 극대화 기준보다 적정성장을 위한 효용극대화 기준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자들은 기부를 통해 부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돈이나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은 돈이나 재물을 이웃과 나누는 것을 뜻하는데, 나눔은 기독교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신앙행위이다 (이혁배, 2012)

3.2. 가난의 위험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간구하였다. 아굴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어느 정도일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만나는 각 사람에게 날마다 하루 먹을 만큼의 분량이 주어졌다.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지만, 나중에 헤아려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먹을 만큼이었다 (출 16:17).

요한복음 5장에는 경쟁사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그 사회의 구성원은 병자들이다. 베데스다라 하는 못의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경쟁에서 낙오되는 상태가 된다.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병자에게 그의 소원을 물으셨다. 이 병자의 문제는 그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다.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가난한 어려움의 상태에서 자립적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의 가계도 무한경쟁에 내몰려 부채 과다, 부동산 편중 현상, 가계소득 감소, 노후소득의 부족 등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기업과 가계 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이는 38년 된 병자가 겪는 어

려움과 유사하다. 경쟁사회에서 취해지는 패자의 어려움, 제로섬 사회에서의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인본주의 사회의 의존적인 행태 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성장시대에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틴 셀리그먼, 2012).

우리나라의 가계는 부동산 편중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규모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와 구조에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퇴직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각종 연금소득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자산가치의 하락과 부채의 증가, 소득감소 등을 볼 때 가계의 재무상태가 축소지향형으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일자리 창출은 소득의 부족과 생산인구의 감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제자립을 도울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방안으로 최소 생계비를 벌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이 필요시 된다.

3.3 동반성장

부와 가난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육성이 중요하다. 정치권에서도 표현은 다르지만 중산층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6년 각 정당의 국회 대표 연설의 키워드는 중향 평준화, 격차 해소, 포용적 성장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반성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전 새누리당이 밝힌 '중향 평준화'의 견해를 살펴보면 청년 실업이 10%를 넘어서고 체감 실업률이 30% 수준이며 그나마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임시직이 적지 않아 불안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들 평균의 두 배인 50% 수준이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소득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상향평준화는 하위 90%에 있는 사람들도 상위 10%처럼 대우해 주자는 것인데, 이는 실현될 수 없는 주장이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고임금과 여러 복지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한다는 것이 중향 평준화다.

한편 국민의당은 '격차 해소'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 전체 순자산 상위 30%가 전체자산의 73%을 가지고 있으나 하위 30%의 몫은 2.5%에 불과하며 불평등한 고용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은 민간에 대한, 재벌과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그리고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등 여러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 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권에서는 중산층 육성이 합의에 도달하였고 이의 실천만이 필요로 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누적된 중소기업 부실이 내수부진, 성장둔화, 양극화 심화 등의 악순환 및 분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의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즉 낙수효과(top-down track)를 정상화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거래의 관행 근절 등이 필수요건이다. 둘째,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 등과 같은 분수효과(bottom-up track)가 필요하다.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기술개발, 해외진출,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초과이익의 공유, 대기업이 지네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함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 키우기,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안정을 꾀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동반성장은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과 분열 해소에 기여하여, 더불어 사는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 수 있다 (정운찬, 2016).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세제를 포함한 정책의 변경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상향되고, 고소득자·대기업·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3.4 청교도의 시각

미국 자본주의의 정신에 기반이 된 청교도의 가르침도 돈을 개인의 소유물이기보다 사회적 재화로서 사회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위하여 써야 한다는 청지기 의식(stewardship)이 있었다. 이는 신자들의 물질생활은 부의 극대화를 통한 개인적인 욕망의 추구보다는 사회적 효용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효용은 양극화의 위험을 줄이는 중용의 가치를 더욱 크게 한다 (리래든 라이큰, 1995).

청교도들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보다는 "어떻게 쓰느냐"를 중시하였다. 청교도 신

학자 윌리엄 퍼킨즈(William Perkins)는 돈은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용도에 쓰여야 하는데 이 때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돈은 가장 먼저 자신의 생존과 생활 유지를 위해 써야 하며,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며, 네 번째로는 건강한 종교와 국가 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양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고르반 서약 곧 종교적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는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라 하며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완악함을 책망하였다 (막 7:10-12).

캘빈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자 청교도들은 돈이란 그 자체로 선하며, 사람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으로 여겼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그저 가난에 만족하는 무관심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위로해줄 책임이 있다.

청교도들은 부가 지닌 위험에 대해, 사람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부인하기 쉽다고 보았다. 그래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 23:4-5)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재물에 의지하고 사느니 재물이 없이 지내기가 훨씬 더 쉽다고까지 말한다.

청교도들은 돈을 소유하거나 소비할 때 다른 무엇보다 중용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소유한 재산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용 곧 절제는 양극단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양극의 하나는 탐욕이다. 탐욕이란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부자가 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중용의 또 다른 상극은 사치이다. 청교도들이 경계하는 사치스러운 것의 예로는 지나친 과식, 너무 비싼 음식, 화려한 옷, 불필요한 나들이와 오락, 호화스러운 건물 등 생존과 인간답게 생활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것들을 말한다. 돈이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검소한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교도의 시각은 아굴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산층 경제의 영적 기초가 된다.

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굴의 잠언에 나타난 기도 내용을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의 기도는 정직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삶을 경제생활에 적용하여 보면 정직한 경제, 중산층 경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직한 경제는 회계의 진실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

제가 해결되면 기업가치가 상승한다.

둘째, 경제적 자유는 부와 가난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족하는 중산층 경제로, 중산층의 육성은 동반성장으로 가능하며 국민경제를 안정시킨다. 청교도들도 돈에 대하여 중용의 자세를 중시한 것에서 중산층 경제의 신앙적 유익을 찾을 수 있다.

아굴의 기도는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분식회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중산층 해체 등 국민경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김준석 (2017).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위험-수익관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컨퍼런스 주제발표자료, 24-31.

김상조 (2016). 비금융권 금산분리 규율체제의 재설계.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1-43.

김형철 (2015). 배당소득세와 가계재무전략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3(2), 63-76.

김형철 (2017). 중산층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15(1), 139-154.

리래든 라이큰 (1995).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 생명의 말씀사.

마틴 셀리그먼 (2012). 낙관성 학습. 물푸레.

박정윤 (2014). 복음적 기업재무경영의 목표와 원리. 로고스경영연구, 12(2), 59-74.

이지혜, 변희섭 (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배당행태. 경영학연구, 43(2), 353-385.

이경락 (2017).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경영. 율곡출판사.

이혁배 (2012), 성서적 관점에서 본 나눔. 신학과 실천, 30, 453-473.

오준범, 이준협 (2014).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현대경제연구원, 14(34), 1-14.

짐 윌리스 (2011). 가치란 무엇인가.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전광식 (1991). 가난과 부요의 저편-아굴의 기도와 성경적 소유원리. 통합연구 4(2), 181-200.

정운찬 (2016). 동반성장과 한국경제.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자료.

조권 (2017).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흐름출판.

최성근, 이준협 (2015).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15(6), 1-16.

황병철 (2003). 아굴의 기도. 생명의 말씀사.

황호찬 (2001). 돈, 그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태학사.

Donald M. Hallberg (2002). Mission endowment fund: A guide for congregations. ELCA Foundation.

Girouard, N., M. Kennedy, C. & Andre (2006). Has the rise in debt made households more vulnerable?.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535.

McKinsey&Company (2013).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McKinsey Global Institute, 3-49.

Moore, Gary (1990). The thoughtful christian's guide to investing. Zondervan Publishing House.

Simon CY Wong (2010). Why stewardship is proving elusiv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July/August, 406-411.